

英國의 對中東政策

—Palestine 問題의 根源—

韓 昇 洙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13世紀에 國家를 일으켰던 오토만帝國은 1453年 Constantinople을 함락시키고 歐洲大陸에 발판을 붙이게 되었다. 그러나 16, 17世紀에 걸쳐 世界的 強國으로 浮上했던 오토만帝國이 다른 王朝들과 비슷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歷史的 當爲였다. 따라서 오토만帝國의 中東支配力도 그 힘을 서서히 잃어가게 되었다.

특히 第1次世界大戰을 고비로 하여 터키를 除外한 中東全域에 대한 統制權은 西歐로 넘어가게 되었다. 中東內 아랍國家들은 英國과 프랑스의 直接的인 統制下에 들어갔고 名目上 獨立을 유지해 오던 이란도 英國과 소련으로부터 間接的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中東內에서 獨立을 유지했던 나라는 그래도 오토만帝國의 몰락과 더불어 출현했던 Kemal Atatürk가 영도하는 터키 한 나라뿐이었다.

초기에 中東內 아랍民族主義者들은 西歐 특히 英國과 協力하여 오토만帝國에 대항한다면 오토만帝國의 몰락 후 獨立爭取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후 전개된 歷史的 事實들은 이러한 判斷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여하튼 中東의 아랍指導者들은 아랍蜂起(Arab Revolt)를 통하여 第1次大戰이 英, 佛 等の 勝利로 끝나고 오토만帝國이 分割되면 自然스럽게 獨立이 될 것이라는 確信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確信은 특히 당시 아랍勢力의 指導者였던 메카의 셰리프(Sheriff of Mecca), Hussein과 英國政府의 카이로駐在辨務官인 Sir Henry McMahon 間的 書信 交換에 의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所謂 McMahon Correspondence로 알려진 McMahon이 1915年 10月 24日 字로 Sheriff Hussein에게 보낸 書信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영국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書信을 보내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도 기꺼히 받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Mersina와 Alexandretta 두 地區와 Damascus, Homs, Hama와 Aleppo 地域의 西便에 위치한 Syria의 一部는 純粹한 아랍地域이 아니므로 귀하가 요구했던 境界線內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상의 修正내용 이외에는 현재 영국정부가 아랍土侯들과 맺고 있는 條約의 內容에 反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要請하신 境界線에 대하여 異意가 없습니다.

英國이 그의 同盟國인 프랑스의 利益에 害가 되지 않는 限 境界內 地域에 대해서는 本人이 政府의 이름으로 다음을 確言하며 貴下의 書信에 答하는 바입니다.

1. 上記 修正事項의 범위내에서 英國은 메카의 셰리프(Sheriff of Mecca)가 요청한 대로 境界內 모든 地域에서 아랍人(the Arabs)의 獨立을 認定하고 支援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英國은 모든 外敵의 侵入으로부터 聖地의 安全을 保障하며 그곳의 不可侵性을 認定할 것이다.

3. 英國은 事情이 허락하는 한 아랍人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이 地域內에서 가장 適切한 形態의 政府를 樹立하도록 도울 것이다.

4. 反面에 아랍人들은 오직 英國의 자문과 지도를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健全한 行政業務遂行에 필요한 유럽출신 고문관과 관리는 英國人이 될 것이라는 것들로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5. Bagdad와 Basra에 관해서는 아랍人들이 英國의 既得權과 利益이 地方民들의 福祉를 增進하고 相互經濟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外敵의 侵入으로부터 이 地域의 安全을 保障할 수 있도록 特別한 行政의 制度를 필요로 함을 認定하여야 한다.

本人은 이러한 宣言을 통하여 英國이 友邦 아랍人들의 大望에 대하여 同情心을 갖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였으며 이것이 확고하고 장기적 同盟의 기틀이 되기 바라며 이러한 同盟이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터어키의 명으로부터 아랍人을 해방시키며 아랍國家로부터 터어키人을 추방토록 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¹⁾

(1) *Correspondence between Sir Henry McMahon and the Sheriff Hussein of Mecca, July 1915-March 1916* (Cmnd 5957) (HMSO, London, 1939). Reprinted in T.G. Fraser, ed., *The Middle East 1914-1979* (Edward Arnold, London, 1980), pp. 12-13.

그러나 이와같이 아랍民族主義者들을 오토만帝國에 對抗하여 싸우도록 유도한 書信을 기안하면서 英國과 프랑스, 특히 英國은 아랍利益에 反하는 두 가지 政策을 同時에 推進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Palestine을 유대인들의 民族的 鄉土(National Home)로 양여하여 줄 것이라는 Balfour 宣言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勝戰後 오토만帝國治下에 있던 아랍地域을 英國과 프랑스가 分割한다는 내용의 Sykes-Picot 秘密協定이었다.

1917年 10月 31日 英國의 戰時內閣은 外相으로 하여금 시온主義者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것이 그 해 11月 2日에 발표된 Balfour 宣言이었다.

“英國政府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民族的 鄉土를 樹立하는 것에 好意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한 이 目的을 쉽게 達成토록 하기 爲하여 最善을 다 할 것이다. 다만 Palestine內에 이미 存在하는 非유대人社會의 市民的 그리고 宗教的 權利를 해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되는 것과 또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權利와 政治的 身分이 해쳐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이해되어야 한다.”⁽²⁾

Paestine에 유대國을 창설한다는 계획이 처음 나타난 것은 1896年 오스트리아의 言論人인 Theodor Herzl에 의해서였다. 당시 Palestine은 오토만帝國의 統治下에 있었으며 第1次大戰中 그곳의 人口分布를 살펴보면 아랍인들이 약 60萬名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작 8萬名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第1次大戰이 일어나자 유대인이면서 英國의 閣僚의 한 사람이었던 Herbert Samuel이 Palestine에 유대國을 창설하여 수에즈運河 東岸에 英國의 植民地政策을 強化하는 方案을 提示하였고 그후 Lloyd George 首相은 이러한 提議를 호의로 받아들였었다.

러시아胎生の 유대人으로서 英國시온主義者聯盟(English Zionist Federation)의 위원장이기도 하였던 Chaim Weizmann은 Balfour宣言의 動機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³⁾

“...Balfour宣言은 두가지 動機에 의하여 決定되었다. 첫째는 理想主義的 動機인데 이것은 당시 Balfour나 Lloyd George와 같은 政治人들이 着實한 宗

(2) Balfour 宣言의 內容은 戰時內閣 261, CAB 23/4에 記錄되어 있다.

(3) UNSCOP Report Vol. III: 1947年 7月 8日 Jerusalem에서 있었던 21次 會議에서 Weizmann의 證言.

敎人으로서 聖經의 內容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난 3千年間 人類文明에 功獻한 사실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주고 싶었던 데 연유하였다.

둘째는 功利的 動機이다. 당시 英國과 英聯邦은 生存을 걸고 大戰을 치루고 있었는데 이 戰爭에서 勝利하기 위해서는 美國의 支持가 필요하였으며 당시에 美國內에서 強力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대인들이 中立을 취하거나 親獨逸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이와같은 宣言을 통하여 美國유대인들의 輿論을 유리하게 유도하고자 하는 意圖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英國은 Palestine에 있어서 유대國 創設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McMahon書信에 담긴 約束과 배치되는 내용의 宣言을 行함으로써 아랍人들에게 큰 失望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英國과 프랑스(그리고 帝政러시아)는 第1次大戰中인 1916年 4月과 5月 사이에 奧托만帝國이 멸망한 후 아랍地域의 分割에 대한 비밀協定, 所謂 Sykes-Picot 協定을 外交覺書(notes)의 交換形式을 통하여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4)

英·佛兩國은 아랍土侯의 領導下에 獨立될 아랍國 혹은 아랍國家聯合을 A地域과 B地域으로 나누어 A地域에는 프랑스가 B地域에는 英國이 企業投資活動의 權利와 外國人顧問을 추천할 權限을 갖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아랍地域을 靑色(Blue), 赤色(Red) 그리고 갈색(Brown) 地域으로 나누어 아랍國과의 協定을 통해 靑色地域을 프랑스가 赤色地域에서는 英國의 直接 혹은 間接統治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갈색地域은 러시아와 協의를 거친 후 同盟國 및 메카(Mecca)의 셰리프와 協定을 통하여 國際管理에 맡기도록 결정하였다. 그 위에 英國은 Haifa港과 Acre, A地域의 Tigris江과 Euphrates江으로부터 B地域內 水量供給을 確保받았고 프랑스의 同意 없이 Cyprus의 讓渡를 第3國과 協商치 않기로 하였다.

이와같이 奧托만帝國의 멸망 후 아랍地域의 分割에 대한 비밀협정(모두

(4) 英·佛·露 3國이 合意한 Sykes-Picot 協定의 內容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으나 1917年 러시아革命以後 볼셰비크政府가 이를 公表하여 Sheriff Hussein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 協定의 內容은 다음을 參照할 것. E.L. Woodward and R. Butler ed., *Documents on British Foreign Policy 1919-1939*(HMSO, London, 1952) 내용은 다음에 전제되었음. “Anglo-France-Russian Agree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73-74* (Europa Publications Ltd, London, 1973), pp. 46-47.

12條로 구성)은 아랍中東에 대한 歐洲 특히 英國과 프랑스의 野慾을 충분히 나타내 주고 있으며 볼셰비크 革命을 통하여 이의 內容을 알게 된 아랍側 특히 아랍峰起를 통하여 英國과 協力할 것을 다짐했던 Sheriff Hussein에게 준 충격은 너무 컸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랍內에서 Sheriff Hussein의 影響力이 強力한 道德的 힘을 잃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第一次大戰이 英佛의 勝利로 끝나고 오토만帝國이 붕괴되면서 中東內 특히 Palestine을 둘러싸고 아랍인과 유대인간의 갈등은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Palestine은 1922年 7월 24일 國際聯盟의 決定에 의하여 英國이 委任統治를 하도록 委任받았다.⁽⁵⁾ 이 委任決議案은 前文에서 1917年 11月 2日字 英國政府의 宣言 즉 Palestine內에 유대인의 民族的 鄉土를 創設할 것과 이의 條件을 第2條에 表示하고 있다.

Palestine을 유대인들의 民族的 鄉土로 宣言했던 英國은 아랍인들의 간헐적 反對와 反抗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1922年 6月 3日字 當時 植民地 擔當相(Secretary of State for the Colonies)이었던 Churchill이 行한 Palestine 아랍代表團과의 書信交換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⁶⁾

Churchill은 무엇보다도 Palestine內에 아랍인들이 두려워하는 狀況 즉 “英國이 英國人的인 것처럼 Palestine을 유대人的으로 만들것”—Palestine is to become Jewish as England is English—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이러한 狀況이 實踐의으로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英國政府는 그러한 目的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다만 Balfour 宣言을 통하여 英國이 의도하는 바는 Palestine 全域을 유대인의 民族的 鄉土로 轉換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鄉土가 Palestine內(in Palestine)에 創設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었다. Churchill은 自己의 主張을 正當化하는 方案으로 Palestine內의 시온主義者委員會—一名 팔레스타인 시온主義者執行部—가 Palestine의 一般行政에 參與할 의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

(5) Palestestine 委任統治에 관한 國際聯盟의 決議는 1922年 7月 24일에 있었으며 全文 28條로 구성되어 있다. 英國政府白書, *Mandate for Palestine*, Cmnd, 1785 (HMSO, London, 1922) 參照.

(6) 소위 Churchill 覺書로 알려져 있는 이 文獻은 英國政府白書內에 출판되어 있다. Palestine, Correspondence with the Palestine Arab Delegation and the Zionist Organization (British White Paper), Cmnd 1700(HMSO, London, 1922), pp. 17-21을 參照할것.

다. 뿐만 아니라 人口를 보더라도 유대인은 불과 8萬名으로 그 가운데 4分の1은 農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英國政府는 아랍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유대인들이 실망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의 民族的 郷土를 創設하기 위한 政策의 前提로서 유대인들의 移住民數를 增大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移住民數는 Palestine經濟의 吸收能力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이러한 移住民數의 急增可能性이 當時로서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英國이 Palestine을 占領한 이후부터 Churchill覺書가 나올 때까지 유대인 移住民總數는 約 2萬5千名에 불과하였다.

1933年 獨逸에서 Nazi黨이 執權을 시작하면서 取한 反유대人政策은 유럽內 유대인들의 Palestine移住를 서서히 촉진시키게 되었다. 유대인 移住民의 增加등의 이유로 1930年代 中盤 以後부터 Palestine內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는 더욱 惡化되었으며 이러한 狀況에 대한 對策을 講究하기 위하여 英國政府는 1936年 Peel卿을 委員長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委員會(一名 Peel Commission)를 구성하였다. Peel委員會는 1937年 7月 그 報告書에서 英國政府가 Palestine의 委任統治를 終熄시킬 것과 Palestine內의 統治構造의 二元化를 建議하였다. 즉 Peel委員會는 Palestine Transjordan과 아랍인들에 割當되는 Palestine을 습쳐 아랍國을 創設할 것과 유대인들에 割當되는 Palestine에 유대國을 創設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다.⁽⁷⁾

Peel委員會가 Palestine의 分割을 建議하게 된 주요 동기는 Palestine內에서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間에 公開的으로 혹은 潜在的으로 紛爭이 계속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兩民族의 差異가 여러 側面에서 많이 있는 때문이었다. 즉 아랍인들은 性格上 東洋的인데 유대인들은 歐洲의이며 宗教와 言語도 文化의, 社會的 生活이나 思考方式과 行動樣式도 다르기 때문이며 歷史的 意識自體內에도 너무나 큰 갈등의 요인들이 많다는 것이 分割을 主張토록 하게 한 原因이 되었다.

1930年代를 통하여 Palestine을 둘러싸고 英國의 政策이 一貫性을 잃고 있었던 事實은 2年뒤에 발표된 1939年 英國政府白書에서 알 수 있다.⁽⁸⁾ 英國政府는 Peel委員會의 報告書內容과는 상관없이 向後10年間(즉 1949년까지) 獨

(7) *Palestine Royal Commission: Report 1937* (British Blue Book) Cmnd 5479 參照. 이 報告書가 Palestine 分割에 관한 見解로서는 처음으로 公式化된 것임.

(8) *British White Paper*, Cmnd 6019 (1939. 5.) 參照.

立된 Palestine國을 創設하여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共存할 것을 容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39年 白書의 要點은 유대인의 Palestine移住民과 관련된 問題였다.

英國政府는 유대인의 移住를 禁止시키라는 아랍側의 主張을 일축하면서 그렇게 되면 Palestine의 財政 및 經濟制度가 피해를 보게 되어 유대인은 물론 아랍인까지 손해를 받게 되고 한편 Nazi의 勃興과 더불어 歐洲內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인식하면서 Palestine이 이와같은 世界的 難題解決에 功헌을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英國白書가 허락하는 유대인 移住民數는 유대人口가 向後 5年內 Palestine人口의 約 3分の 1 水準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上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向後 5年間 7萬5千名의 移住民人口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數字가 아랍인들에 의해서는 너무 많고 不當하다고 主張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너무나도 적다고 主張되면서 移民을 둘러싼 갈등이 특히 조직된 유대기관과 委任統治當局間에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第2次大戰以後 英國은 中東內에서 帝國主義的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形態로든 남아있기를 원했으나 이미 經濟力과 軍事力은 쇠퇴해 있었다. 당시 Palestine에서 서로 競爭關係에 있던 시온主義者들 그룹은 英國을 괴롭힐 수 있는 한 괴롭힘으로써 가능한 한 조속한 時日內에 委任統治를 終熄시키기 위하여 聯合戰線을 펴고 있었다.

1945年 11月 英國政府는 美國政府의 壓力과 10月부터 激化된 유대인 不法團體인 Haganah, Irgun 및 Sternist에 의한 폭력사태의 돌발로 英美調査委員會의 構成에 同意하였고 이 委員會는 Palestine에 Nazi의 침박으로 희생의 대상이 된 유대인 10萬名을 移民시킬 것과 유대인이나 아랍인 共히 그들의 Palestine에 對한 排他的 主張은 3原則——즉 Palestine內에서 유대인은 아랍인을 아랍인은 유대인을 支配할 수 없고, Palestine은 유대國이나 아랍國으로 될 수 없으며, 終局的으로 수립되는 政府는 國際的 保障下에 기독교人, 유대교人 그리고 모슬렘들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原則——에 의거하여 完全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⁹⁾

(9) Anglo-American Committee of Inquiry의 內容은 當時 美國의 國務長官署理였던 Dean Acheson이 美國外交官들에게 發說한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다음을 참조할 것. T.G. Fraser, *The Middle East 1914-1979* (Edward Arnold, London, 1980), pp. 28~29.

당시 英國의 勞動黨政府는 10萬名의 移民을 위한 財政的 負擔이 너무 크므로 美國의 經濟的 도움이 없이는 不可能하며 法과 秩序의 維持도 당시 Palestine에 주둔하고 있던 英國軍 2.5個 師團兵力을 가지고는 어려우며 적어도 1個 裝甲旅團이 더 필요하므로 軍事的 支援도 필요하다고 主張하였다.⁽¹⁰⁾

이와같은 英國의 要請은 美國合參會議의 強力한 反對建議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英國調查委員會의 建議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으나 결코 委任統治中인 英國은 그 立場이 가벼워지지 못하고 더욱 더 많은 難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되었던 것이다.

英國은 당시 팽배해 가던 Palestine內의 무질서와 폭력을 단속하기 위하여 유대人機關(Jewish Agency)의 사무실을 점령하고 Haganah派 등의 지도층人士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1946年 7月 22日 Haganah의 同意下에 Irgun派는 당시 英國軍事 및 民政本部였던 King David호텔의 일부를 폭파하여 버렸으며 이것을 계기로 英國은 美國政策에 부합할 수 있는 政治的 解決을 모색하고자 努力하였으나 Atlee政府에게 이러한 解決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King David호텔事件을 계기로 英國政府는 Palestine內의 兩陣營 즉 아랍人側과 유대人側의 政治的 解決을 통한 合意點을 찾고자 무척 努力하였다. 1947年 2月 7日 外相과 植民地相의 共同覺書가 英國內閣에서 論議되었는데 그 안에서 外相은 아랍側이 Palestine의 分割에 反對하고 유대人들의 移住를 反對한다고 要約했고 유대人側은 Balfour宣言과 委任統治는 Palestine全域에 유대國家의 創設이 約束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主權을 가진 유대國의 創設이 가장 중요한 原則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英國外相은 Palestine이 信託統治라는 5年間의 過渡期를 거쳐 獨立을 하되 地方單位에서 아랍人과 유대人들이 充分한 自治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向後 2年內에 유대人 10萬名의 移住를 허락하고 그후부터의 移民은 兩側의 合意에 의하거나 이것이 失敗하는 경우 UN의 中裁에 의하는 案을 提案하였다.⁽¹¹⁾

(10) 1946年 5月 9日 美國務長官 James F. Byrnes가 英國外相 Bevin과 會見한 후 Truman 大統領에게 보낸 英國의 Palestine 政策에 관한 메모, *Ibid.*, pp. 30~31 參照.

(11) 1947年 2月 7日字 Palestine 問題解決을 위한 마지막 努力에 관한 英國內閣의 討議內容은 다음을 참조할 것, T.G. Fraser, *op. cit.*, pp. 35~38.

이와같은 提案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것이 유대인은 永久히 少數民族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獨立된 單一國家의 設立을 意味한다고 反對하였으며 아랍인들은 이러한 提案이 궁극적으로 Palestine의 分割을 意味하며 더 많은 유대인의 移住를 장려한다고 하여 反對하였다.

이와같이 兩立될 수 없는 兩側의 反對에 봉착하여 英國政府는 1947年 2月 14일에 Palestine問題를 UN에 移管, 上程시키기로 決定하고 그 해 4月 2日에 UN事務總長에게 通告하였다.

이로서 Balfour宣言 以來 30餘年間 英國이 單獨으로 決定하던 Palestine問題는 아직도 제자리가 잡히지 않은 UN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도록 되었고 따라서 Palestine問題에 있어서 英國의 影響力도 減退하기 시작하였다.

UN Palestine特別委員會(UNSCOP)는 1947年 5月 15日 結成되었는데 그 構成會員國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과테말라, 인도, 이란, 네델란드, 페루, 스웨덴, 우루과이, 및 유고슬라비아등 11個國이었다. UNSCOP의 提案은 Palestine의 政治的 分割과 유대國과 아랍國의 經濟同盟을 骨字로 하고 있다. UNSCOP의 提案에 대한 토의는 UN의 全會員國을 포함하는 Palestine問題에 관한 Ad Hoc委員會에서 이루어졌으며 1947年 11月 19일에 最終決議의 草案을 作成하였고 11月 29日 分割決議案이 通過되었던 것이다.⁽¹³⁾ 이와같은 分割決議案은 Ad Hoc委員會 第1分科에서 먼저 결정되었었는데 이 分科에서는 美國과 蘇聯이 함께 會員國으로 活動하였다.

英國의 勞動黨政府가 Palestine問題를 UN에 上程시킨 후에 계속 겪어야 했던 난처한 입장과 現實의 政策의 不在는 特記할 만한 事實이라 아니할 수 없다.⁽¹⁴⁾ 根本적으로 英國政府는 Palestine의 分割에 反對하였으며 이러한 英國의 政策은 分割을 通하여서라도 유대國을 創設하려는 시온主義者들의 立場과 正面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다.

第1次大戰中에 英國의 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온主義者들에게 Palestine

(12) *Ibid.*, pp. 38-39.

(13) Ad Hoc委員會의 決議內容은 다음을 參照할 것. *Ibid.*, pp. 54-56. UN 決議案은 다음을 참조할 것.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Future Government of Palestine (Partition Resolu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73-74*, pp. 55~56.

(14) UNSCOP 提議에 대한 英國政策의 內容을 Bevin 外相이 內閣에 報告한 說明書(1947年 9月 20日字)는 다음을 參照할 것. T.G. Fraser, *op.cit.*, 47-48. 1947年 11月 20日 "Palestine 問題에 관한 Ad Hoc 委員會"에서 行한 Alexander Cadogan 卿의 演說內容은 다음을 參照할 것. *Ibid.*, pp. 56-57.

에 民族的 郷土를 提供하겠다고 한 Balfour宣言 以來 滿 30年만에 英國은 바로 그 시온主義者들에 의하여 委任統治地인 Palestine에서 가장 치열한 反對에 봉착하였고 격렬한 嫌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30餘年間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던 英國은 Palestine에서 영향력이 감퇴하기 시작하였고 英國이 Palestine에서 떠나야 될 歷史的 時期에 이른 것이다.

1948年 5月 14日 英國의 高等辨務官이 Palestine을 떠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유대人들은 이스라엘國의 創設을 宣言하였으며 美國은 곧 이스라엘을 認定하였다. 1948年 美國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먼저 認定했던 나라는 소련이었다. 다음날 이스라엘과 이집트, 트란스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및 레바논 사이에 戰爭, 소위 第1次 아랍·이스라엘戰爭이 일어났다.

이로부터 Palestine을 둘러싼 中東問題는 第2次大戰 以後 二大強國인 美國과 소련의 重要政策對象地域이 되었다.⁽¹⁵⁾

(15) 1948年 以後 Palestine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美國과 蘇聯의 對中東政策의 概要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Robert Hunter, "The United States in the Middle East," in Peter Mansfield, *The Middle East: A Political and Economic Surve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3) pp.90-100. Geoffrey Wheeler, "Soviet Policy in the Middle East," *Ibid.*, pp.100-111.